

서 빈번한 재발군에 비하여 SPI가 유의하게 낮았다.

7) 임상경과중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선택적 단백뇨군과 비선택적 단백뇨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성인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에서도 선택적 단백뇨지수가 스테로이드 치료의 반응도를 예측하는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7 -

### 성인의 미세변화 신증후군의 임상양상과 추적조사

경희의대 내과

김영수 · 서원교 · 윤현구

이태원 · 임현규 · 김명재

병 리 과

양 문 호

연자들은 1980년부터 1986년 사이에 경희의대 부속병원 내과에서 신생검상 미세변화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성인 47명의 임상상을 관찰하였으며, 그중 면역억제요법을 시행하여 2개월이상 추적된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조사분석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인 신증후군환자들 중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47명으로서 42%였다. 연령은 16~58세(평균 27.2세)였고, 남녀비는 2.4 : 1이었다. 고혈압은 27%, 일시적인 신기능저하(혈청 크레아티닌  $\geq 1.5$  mg/dl)는 35%, 혈뇨(RBC  $\geq 5$ /HPF)는 41%였으며, 평균 1일 뇨단백량은 8.8 gm이었다.

2) 프레드니솔론 치료대상으로 매일투여군은 27명(남자 : 15명, 여자 : 12명)이며, 연령은 16~58세(평균 26.2세)였고, 격일투여군은 13명(남자 : 9명, 여자 : 4명)이며 연령은 16~46세(평균 25.1세)였다.

3) 프레드니솔론치료후 일차반응자는 매일 투여군은 22명(82%), 격일투여군은 12명(92%)이었으며, 이들 중 2개월내 관해를 보인 예는 매일 투여군에서 20례 격일투여군에서 12례였다.

4) 1년 추적기간동안의 재발은 매일투여군 22명중 50%에서 총횟수 16회, 격일투여군은 12명중 50%에서 6회였고, 2년 추적기간동안에는 매일투여군은 50%에서

총횟수 19회, 격일투여군은 50%에서 6회였다. 장기추적관찰자 22명중 재발이 없이 관해상태에 있는 환자는 매일치료군에서는 7개월에 50%, 1년에 27%였으며 격일치료군에서는 각각 67%, 40%였다. 스테로이드의존형은 매일투여군에서 14%, 격일투여군에서 18%였다.

5) 프레드니솔론치료의 합병증은 반복성 세균성복막염 1예, 심한 전해질불균형 1예였다.

6) Cyclophosphamide와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을 프레드니솔론 저항형이나 빈번한 재발환자 9명을 포함한 13명에서 시행한 결과 10명(77%)에서 완전관해를 보였으며 3명(23%)은 반응이 없었다. 완전관해를 보인 환자중 8명의 추적관찰에서 3명만 빈번한 재발이 나타났다.

이상으로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우리나라에서 성인 신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며 프레드니솔론 매일투여요법에 82%, 격일투여요법에 92%에서 완전관해를 보였고, 선택적인 cyclophosphamide 병용치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 8 -

### 성인특발성신증후군 86예의 병리조직학적 분류와 임상적관찰

고신의대 내과

최창필 · 박시영 · 홍관표 · 김성식

육동민 · 이성숙 · 김경진 · 이시래

병 리 과

장 회 경 · 허 만 하

성인의 특발성신증후군은 사구체병변의 형태학적 유형에 따라 치료반응 및 예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생검에 의한 조직학적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전자현미경 및 면역형광현미경등의 발달로 사구체병변의 형태학적 분류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연자들은 1983년 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고신의대 내과에서 신생검을 실시한 성인특발성신증후군 86예의 병리조직진단의 분류와 이들의 연령별 분포, B형 간염표식자와의 관계 및 steroid투여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하고 면역형광염색을 실시한 34예에서 사구체내에 침착된 면역 globulin 및 보체의 유형을 관찰한 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 전에 86예 가운데 미소사구체병변(minimal change disease)이 34예(39.5

%)로 가장 많았으며 24예(70.6%)가 15~29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steroid투여로 55.6%에서 완전관해를 보였으나 환자 1인당 연간재발빈도는 1.12회였다.

중액세포증식성사구체신염(mesangial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은 22예(25.6%)로서 30세 미만의 연령층에 가장 많았고(63.6%) 면역형광현미경 소견으로 특징적인 것은 50%에서 IgA의 침착을 보였고 steroid에 대한 반응은 부분적 완해가 78.9%를 차지하였다. 막성사구체신염(membranous glomerulopathy)은 14예(16.3%)로서 다른 사구체신염보다는 비교적 높은 연령에서 발생하였으며 면역형 광염색을 실시했던 2예 모두에서 IgG의 침착이 있었고 5예(35.7%)에서 HBsAg 및 HBeAg이 양성으로서 B형간염항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steroid에 대한 반응은 완전관해가 7.7%, 부분관해가 23.1% 무반응이 69.2%였다. 소상 및 구상사구체경화증은 11예로서 12.8%를 차지하였고 steroid에 대한 반응은 부분적관해가 55.6%, 무반응이 33.3%였다.

막증식성사구체신염(membranoproliferative-glomerulonephritis)은 5예(5.8%)였고 3예에서 혈청 보체 C<sub>3</sub>의 심한 감소를 보였고 2예(40%)에서 HBsAg이 양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1예에서 HBsAg의 소실과 함께 단백뇨의 완전관해를 관찰하였다.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상 및 분절성사구체경화증 25예(17%), 막증식성사구체신염 15예(10%), 막성사구체신병증 14예(10%), 중액세포증식성 사구체신염 및 만성사구체신염이 각각 4예(3%) 순이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미소변화형 가운데서는 nil lesion이 47예(57%)로 가장 많았고 mild mesangial hypercellularity 20예(24%), focal tubular change 8예(10%), mild mesangial thickening 6예(7%)순이었다. 병리조직형의 분류에 따른 임상상의 특징으로는 초발연령은 미소변화형이 평균 24세로 가장 낮았고 막성사구체신변증은 평균 37세로 가장 높았다. 현미경적 혈뇨의 빈도는 막증식성사구체신염에서 87%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은 막성사구체신병증에서 36%로 가장 높았으며 질소혈증은 만성사구체신염에서 50%로 관찰되어 가장 높았고 혈청 C<sub>3</sub>의 평균치는 막증식성사구체신염에서 가장 낮았다.

스테로이드치료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는 완전관해 41%, 스테로이드 의존형관해 14%, 부분적관해 5%였고 스테로이드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예가 40%였다. 미소변화형의 스테로이드치료에 대한 반응은 완전관해가 55%로 가장 많았고 그외 스테로이드 의존형관해 21%였으며 23%에서는 스테로이드치료에 저항하였다.

- 9 -

### 성인 특발성 신증후군의 임상적관찰

계명의대 내과

이원석 · 박성배 · 김현철

병 리 과

이 상 속 · 정 재 흥

1981년 4월부터 1987년 3월 까지만 6년간 계명의대 동산병원에 신증후군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신생검으로 병리조직학적 분류가 가능하였던 144예를 대상으로 이들의 병리조직학적 분포, 임상상, 치료에 대한 반응 및 경과관찰을 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전 144예 가운데 남녀비는 2.2:1로 남자에 많았고 연령별로는 15~39세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병리조직학적 분포는 미소변화형이 82예(57%)로

- 10 -

### 성인의 원발성 신증후군의 임상상

서울의대 내과

이상구 · 김윤권 · 김성권 · 이정삼

병 리 과

김 용 일

우리나라 성인에 있어서의 원발성 신증후군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검토는 많이 보고되어 있으나 그 대상군이 비교적 적어 보고마다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연구자들은 1979년 1월부터 1986년 12월까지 서울대학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체중 1kg당 1일 뇨단백이 0.05 gm이상이거나, 기타 질환없이 혈청 알부민치가 2.5 g/dl 이하를 보였던 환자 중 신생검을 시행한 539예에서 원발성 신증후군으로 확인된 339예를 대상으로 조직